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불교중흥’ 공존과 상생으로 우리사회엔 희망을…

■ 신년회견으로 2015 종단운영 방향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 나타난 종단의 운영 방향은 소통과 화합, 혁신이다. 소통과 화합은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목이다. 여기에 혁신을 키워드로 불교중흥을 모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총무원장 스님은 올 한해 중무기조를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공존과 상생, 합심’, ‘공감, 감동과 희망’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소통과 화합 혁신은 불교 내부 발전을 위한 기초이자 종단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일이며, 공존과 상생, 합심은 사회에 희망을 전하기 위한

행발전 사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중앙은 관리역할을 하고 지역 교구가 수행과 전법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 운영철학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앙·교구 발전위원회를 운영하자는 동시에 분야별로 교구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한다. 공청회나 연찬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부대중의 의견도 모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분담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종단 운영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상과 공감하고 감동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기간에 맞춰 봉행될 예정인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는 불교계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과 세대, 이념을 넘어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마당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복 70주년 ‘세계평화와 한반도통일’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며, 이를 위해 통일과 평화 기원 행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무차위령제, 국민화합을 위한 전통문화행사 등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지역 전통사찰을 순례하며 체험하는 전통문화순례 시간도 예정돼 있다.

제34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꾸준히 강조하며 실천해 왔던 자비나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자비나눔 방안을 비롯해 소외계층 지원사업, 조계종간급재난구호봉사단 운영시스템 구축, 국제구호사업을 통해 이웃을 향한 보살행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브랜딩인 템플스테이는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화쟁위원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사부대중 의식개혁운동인 ‘붓다로 살자’ 확산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15년 조계종은 안으로는 종단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며 밖으로는 새로운 기운을 우리사회에 불어넣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총본산성역화 불사 통해
문화소통 공간 마련

교구는 수행·전법 중심
중앙은 관리중심 발전 도모

봉축기간 내 대표도 초청
세계평화 국민화합 기원대회

원칙으로 풀이된다.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중무 사업계획과 방향도 이같은 중무기조를 실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불교만의 공간이 아닌 사회와 소통하고 열린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핵심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복궁과 건지동, 인사동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만들어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불교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역시 소통과 화합, 혁신의 기조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사업이다. 단순히 대중공사에 그치지 않고 모아진 사부대중의 공의는 종단 혁신과 불교 중흥을 위해 법과 제도 만들어 반영할 방침이다.

총무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과 수행, 복지, 중무행정 등을 중앙이 아닌 교구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앙과 교구 균



■ 2015 신년회견은…

사전 조율 없이 질의-응답
적극적인 소통노력 돋보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015년 중무기조와 핵심과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원장 현승스님과 포교원장 지원스님을 비롯해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불교계 기자들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 방송사 등 언론사에서도 대거 참석해 올 한해 종단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총무원장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사전 조율 없이 현장에서 질문을 받으며 주요 사업과 종단 운영과 발전을 위한 평소 소신을 밝혔다.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미였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대부분의 시간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할애했다.

불교계 기자들의 경우 불교통일선언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 등 교계 내부 현안에 주목했고, 일간지 기자들의 경우,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 남북불교교류 사업 및 방북 계획 등 대사회적인 사업에 집중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기자들의 질문에 허심탄화하게 소회를 밝

혔다. 특히 상좌 스님들의 법계 행위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으며, 1994년 멸빈자 문제를 비롯해 동국대 총장 선출, 선학원과의 갈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외포교 및 해외법인 설립 계획, 남북불교교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등 기자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부장 지현스님, 기획실장 임갑스님, 사회부장 정문스님 등이 답변하기도 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 신년회견 일문일답

“통일원칙, 공존과 상생
법계 행위는 엄중조치”

- 지난해 기자회견 키워드는 ‘자비와 화쟁’이었다. 올해 소통과 화합, 혁신을 강조한 이유는?
= 소통과 화합은 33대 집행부 때부터 강조해왔다. 금년에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통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혁신을 내세우게 됐다.

- 불교통일선언 어떤 내용 담나?
= 통일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기초에서 준비해가겠다. 통일의 키워드는 공존, 상생, 합심이다. 공존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상생은 한 민족이 더불어 살자는 것, 합심은 한마음을 의미한다. 세 가지 원칙을 키워드로 해서 준비해가겠다.

- 최근 법계행위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 상좌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은사로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 법계행위에 대해서는 호법부에서 직책과 소임을 막론하고 호법부에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고 호계원에서도 엄중하게 중징계하고 있다.

- 해외법인 설립 계획은?
= 해외법인은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뉴욕 원각사를 종단에서 단일교구로 만들 계획이다. 뉴욕지역에서 만드는 법인과 재산을 뉴욕교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 1994년 멸빈자 문제가 과제다. 어떻게 풀여갈 것인가?
= 1994년 멸빈된 분들은 4명이다. 현재 사찰에 거주하면서 참회하고 복권되길 기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기회가 되면 정중예하와 원로의장 스님을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겠다.

- 언제쯤 총무원장 선거제도 확정안이 나오는지, 직선제를 염두에 두

고 있는지 궁금하다.
= 선거법에 대해 직선제, 선거인단 확대 및 축소, 현행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이런 사안을 모두 검토해 논의하겠다.

- 쌍용차 문제 중재노력은?
= 오랫동안 7대 종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경영 사정이 나아지면 해고노동자들을 다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했다.

- 방북계획은 없는지?
=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차원에서도, 종단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문제가 잘 풀어진다면 계획했던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100인 대중공사의 목표는?
= 대중공사는 그동안 했던 토론회나 공청회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모아진 의견은 법제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백년대계인 미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종단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기획실장 임갑스님)

- 대중공사 불참 선언한 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종단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서 함께 하자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중공사를 진행해 가며 열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기획실장 임갑스님)

- 기원대회의 일정과 규모는?
= 최종안은 결정된 바 없다. 종정예하께 보고했고 자세한 행사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 동국대 총장 선출 외압 의혹에 대해 해명해 달라.
= 총장부문에 대한 언급은 지금 적절치 않다. 이사장 스님 등이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라 여긴다.

- 선학원 갈등 해소 방안은?
= 현재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lee@ibulgyo.com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은 사전조율없이 진행됐다.

차인(茶人)을 위한 공간 차도구 백화점 “와드물”

- 명품 티포트 사마도요 SAMAdoyo 전 모델 보유
- Yiwuyao 이우야오 유리 차도구 브랜드 독점입고
- 라이트킹 Light king 티포트(표일배) 독점입고
- 고급 예술품 자사호, 자사 악세사리 400여종 보유

SAMAdoyo 사마도요, Yiwuyao 이우야오 유리 티포트·티포트세트·차호 다양 보유

고급 차판(다판) 목다탁, 석다탁 500여종 보유!

자사 세트 & 티포트 세트 등 선물용으로 최고~!
도매문의·제품문의·전화상담 환영
Tel. 070-4492-4001

와드물 오프라인 전시매장 오픈!

중국 최고의 도자기 경덕진, 티포트(표일배), 자사호, 다기, 다도구 등 3000여종의 다양한 차도구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경덕진 다섯 브랜드 단독입고!

최고의 도자기마을 경덕진의 가치 높은 최고급 도자기 소아小雅, 백여옥白如玉 등 와드에서 대량 보유중입니다.

▶매장 오시는 길

인천 연수구 연수1동 567-3 (1층)
수인선 연수역 2번출구에서 도보 2분거리

네이버, 다음에 **NAVER D&M**
“와드물”을 검색하세요.

중국 차도구 직수입 업체 (주)와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69번길 1 (연수동, 2층)